

직캠 광풍? 신인 걸그룹의 ‘민망한 노출’

속옷 노출·적나라한 타이즈 의상 구설수
음악방송 출연 위한 ‘노이즈마케팅’ 분석
평론가 “걸그룹 성상품화에 감히게 될 것”

아직 이름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신인 걸그룹들의 민망한 노출이 담긴 ‘직캠’ 영상이 SNS상에 퍼지면서 여러 말들을 낳고 있다. 이들이 무대에서 속바지를 착용하지 않아 속옷을 노출하거나, 너무 짧은 핫팬츠로 엉덩이 일부를 드러낸 영상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되면서 누리꾼들의 호기심 어린 클릭세례를 받고 있다. 여성그룹이 섹시한 매력을 뽐내는 것도 좋지만, 그 무대가 펼쳐지는 행사가 청소년, 가족단위 관객이 모인 자리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걸그룹 스스로도 성상품화에 감히 개연성도 높아진다.

2012년 데뷔한 여성 4인조 식스밤이 최근 서울 대학로의 한 축제에 속옷이 훤히 비치고 몸의 곡선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연두색 형광타이즈를 입고 공연하는 영상이 ‘식스밤 대학로 게릴라 직캠’ 등의 이름으로 온라인에 퍼져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의상 속으로 드러난 속옷과 신체가 너무 적나라해 ‘민망하다’는 반응이 많다.

앞서 4인조 밤비노는 전북 군산의 한 고등학교 축제에 올라 짧은 핫팬츠 차림으로 허리를 돌리는 춤으로 구설에 올랐다. 노출 의상과 수위 높은 춤이 고교축제에 적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시기 부산에서 열린 지역민방 공개방송 무대에서 데뷔 2년차인 칠학년일반의 한 멤버는 속바지를 입지 않고 무

대에 올라 치마를 걷어 올리는 춤을 취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다. 속바지나 속옷이냐를 두고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소속사 측은 “바쁜 스케줄에 스타일리스트가 그만 속바지를 챙기지 못했다”고 ‘솔직하게’ 고백해 많은 이들을 당황하게 했다.

이들의 일부 영상은 유튜브에서 성인인증을 받아야 할 정도로 ‘19금’ 콘텐츠로 유통되고 있다. 해당 영상이 촬영된 곳이 고교축제, 가족단위 관객이 입장하는 행사였다는 점은 아이러니다.

대부분의 걸그룹은 섹시 콘셉트의 신곡을 준비할 경우, 청소년이나 노년층 관객을 고려해 2가지의 버전의 안무와 의상을 준비해, 때와 장소를 가려가면서 유통성 있게 무대를 꾸민다. 하지만 일부 걸그룹들이 청소년이 지켜보는 행사에서도 차별 없는 의상과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이 때문에 이들의 ‘아한’ 무대는 이슈를 만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의구심을 받는다. 음악방송 출연기회를 얻기 어려운 신인들이 음악방송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명분과 계기를 만들기 위한, 의도된 노이즈 마케팅이 아니냐는 시선이다.

작년 가을 EXID 하나가 직캠으로 온라인 상에서 뜨거운 관심을 얻은 후 음악방송에 출연했고, 1위까지 오르는 기적 같은 일을 만들었다. 이후 신인 걸그룹 사이에선 이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직캠’을 유도하려는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대중음악평론가 강태규는 “걸그룹의 의상과 퍼포먼스가 자주 선정성의 시각으로 비춰지다보면 걸그룹이 원래의 존재가치를 잃고 성상품화에 감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식스밤(왼쪽), 밤비노 등 일부 걸그룹들이 관객의 연령을 고려하지 않은 민망한 무대로 구설수에 올랐다. 사진출처 | 인터넷 화면 캡처

스타, 그때 이런 일이 <1990년 9월 22일>



민해경(왼쪽)과 이주호.

스포츠동아DB

민해경, ABU 최우수가수상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

걸그룹에 관해 이야기할 때 섹시함을 빼놓고는 말하기 힘든 시대다. 그만큼 많은 걸그룹들이 섹시함의 매력을 무기로 대중을 공략하고 있다. 지나치게 노골적인 모습은 비난을 받기도 하지만 섹시함을 표방하는 것은 여전히 걸그룹의 중요한 전략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국내 가요계에서 섹시함을 대표하는 여가수는 여럿이다. 그 가운데 1980년대 이후 10여년 동안 톱스타로 군림한 여가수가 있다. 민해경이다.

1990년 오늘, 민해경이 아시아태평양방송연맹(ABU) 가요제에서 ‘보고 싶은 얼굴’로 최우수가수상을 차지했다. 이날 밤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푸트라 국제무역센터 메르데카홀에서 열린 가요제에서 민해경은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호주 홍콩 등 ABU회원국과 유고 및 핀란드 등 모두 14개국 가수가 경연해 최고상을 받았다. 1985년 제1회 가요제에서 구창모와 정수라가 듀엣을 이뤄 부른 ‘아름다운 세상’의 이범희 작곡가가 그랑프리틀, 1989년 이지연이 가장부분 3위를 차지한 데 이은 성과였다.

당시 KBS의 권유로 가요제에 참가한 민해경은 라틴음악인 살사리듬의 댄스곡 ‘보고 싶은 얼굴’로 심사위원과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백댄서그룹 블랙다이버와 함께 섹시하면서도 완숙한 가창으로 박수를 받았다.

듀오 해바라기의 이주호가 작곡한 ‘보고 싶은 얼굴’은 그즈음 국내에서 커다란 인기를 모았다. 방송가요조사연구소가 집계한 1990년 8월 방송횟수 1위가 바로 이 노래였다. 10월에 음반판매량 1위에 오르기도 했다.

민해경은 1980년 국악예고 2학년 때 ‘누구의 노래인가’로 데뷔했다. 그는 이후 10여년 동안 ‘사랑은 이제 그만’ ‘내 마음 당신 곁으로’ 등 히트곡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다. 약한 질감의 허스키 보이스에 무대매너는 자신감이 넘쳐 보였다. 여기에 시원스런 외모와 함께 관능적인 눈빛은 더욱 돋보였다.

하지만 그를 ‘섹시한 가수’로만 기억하는 것은 완전하지 않다. 그의 최대 무기는 가창력이다. 카랑카랑하면서도 치맛은 목소리는 발라드의 여주인공으로서도 실력을 입증했다. 어떤 이는 ‘누구의 노래일까’와 ‘어느 소녀의 사랑이야기’를 1980년대의 대표 발라드곡으로 꼽는다. 윤여석 기자 tadada@donga.com

비·세븐, 내년 상반기 새 음반? ‘닭은폴 행보’

비와 세븐, 비슷한 스타일로 2000년대 가요시장에 큰 영향력을 미쳤던 두 ‘댄싱킹’이 절정기로부터 10년이 지나 다시 닭은폴 행보로 눈길을 끈다.

안양예고 동문으로 평소 연락하며 서로를 응원해온 두 사람은 10대의 어린 나이에 데뷔해 2000년대 남자솔로 댄스가수의 ‘양대 산맥’을 이루며 경쟁했다. 추구하는 음악과 춤이 비슷했고, YG엔터테인먼트(세븐)와 JYP엔터테인먼트(비)라는 라이벌 기획사 소속으로 줄곧 비교대상이었다.

이제 서른이 되고 군복무를 마친 두 사람은 1인 기획사 체제로 활동한다. 세븐은 7월 ‘일레븐나인’이라는 자기만의 회사를 냈고, 비는 기획사 설립을 준비 중이다. 비가 2013년 7월 제대하고 미국 할리우드 영화 ‘더 프린스’에



비

세븐

출연했고, 세븐 역시 2014년 12월 제대 후 뮤지컬 ‘엘리자벳’으로 복귀하는 등 연기자로서 첫 활동에 나선 점도 닮았다. 두 사람은 11월 가수로서 나란히 해외시장 공략에 나선다. 비

는 11월부터 중국 여러 도시를 도는 투어를 한 뒤 일본, 홍콩, 대만 등 다른 아시아 국가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세븐은 10월30일부터 11월9일까지 일본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5개 지역 공연을 펼친다.

이들은 또 내년 상반기 새 음반을 발표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세븐은 이 같은 계획을 일찌감치 세웠고, 계속 음반 준비를 해온 비는 10~11월 사이 내놓을 가능성도 제기되지만 내년 상반기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을 이들 남자솔로 댄스 가수가 없다는 것도 두 사람의 행보를 바라보는 시선을 흥미롭게 한다. 2010년 이후 그룹이 막강한 영향력을 차지하지만, 솔로가수로는 비나 세븐에 필적할 만한 가수가 없다.

김원겸 기자 gyummy@donga.com

■ 빅마우스

●“아내 웃기는 학원 다녀야 할까보다.” (개그맨 박명수) 21일 KBS 쿨FM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남편과 싸웠다는 사연에 “웃기면 화가 풀린다”고 알려줬지만, 자신의 아내는 웃지 않는다면.

●“난 늘 무질려야하는 존재였다.” (방송인 서장훈) 21일 SBS ‘힐링캠프’ 방송에서. 선수 시절 자신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이겨내기 위해 “더 압도적이라 사람이란 걸 보여줘야 했다”며.

●“무슨 심보인지. 진짜 ‘을의 진상’ 짓이네.” (누리꾼 mwp****) 법원의 퇴거명령에도 버티는 건물 세입자에 대해 싸이가 21일 건물인도를 강제집행하고 있다는 인터넷 기사 댓글에서.

편집 | 김태진 기자 bong82@donga.com

디디치킨

“천년브랜드 디디치킨” 유행이 아닌 지속성장

가맹점주님들의 매출 만족도가 높은 수익성과 유행을 타지 않는 전국인의 대표 간식 치킨의 안정성을 꼼꼼히 따져본다면 정답은 바로 디디치킨!!

홈 세트

광고모델 가 로

NAVER 검색하는 디디치킨 www.ddck.co.kr

축! 디디치킨 300호점 돌파기념~

창업난센스의 시대

트렌드를 읽는 브랜드

가맹비 면제 / 로열티 면제 / 교육비 면제

매출이 저조하십니까? 업종전환을 고민하십니까?

맞춤형 창업가능
자본금에 맞게 창업가능
상권매장형태에 따른 창업가능

안전적인 수익보장
중간마진을 뺀 거품없는 창업

차별화된 메뉴
까르보나라, 허니버터치킨 등 트렌드를 반영한 꾸준한 제품출시!

현업중에 맞는 무료 컨설팅 제공!

창/업/문/의
☎ 080-924-9999

맛있는 치킨 ~ 즐거운 치킨! Delicious ~ Delight!

BEST CHOICE

전매누 100% 재고 NO! 닭손질 NO!

위생 YES! 조리간편 YES!

개별포장으로 공급하여 추가 닭손질이 필요없습니다!!